

‘청하농장’ - 최인환 농가

기본에 충실한 양돈우수농가

광주전남지소차장백정경

전남 무안군 삼향면의 산기슭에 위치한 ‘청하농장 (대표 최인환)’은 1.50㏊의 대지위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는 농장이다. 현재 모돈 190두 규모로 기본에 충실한 사육만이 특특하고 건강한 돼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신념을 재산으로 이어지며 돼지를 키우고 있다.

사양관리

공직생활을 하다 양돈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년에 착심으로 양돈산업에 뛰어들었지만 7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처음 돼지를 키우면서 기본에 충실하게 돼지를 키우고자 막은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다. 돼지 사육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종돈입식은 지정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한 종돈만을 구입하여 번식에 이용하고 있고, 또한 공직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문서관리 요령을 농장에 적용시켜 농장의 모든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정해진 사양프로그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그리고 준수하기는 충분한 비육을 시켜 평균 16(원령

을 지켜 규격화된 돼지를 출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과 더불어 돼지 품질향상에도 노력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출하된 돼지의 고급육 출현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우수한 성적을 이루기도 했다.

앞으로의 계획

최대표는 한·미·FTA 다결과 관련하여 우리 축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돈산업은 축산업 증가상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규격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의 고급화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올해는 모돈을 250두 규모로 늘림과 동시에 품질향상에도 주력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2006.1.1~2007.4.30 청하농장의 등급판정결과>

구분	A	B	C	D	계
두수(두)	2,725	1,240	383	151	4,499
출현율(%)	60.6	27.6	8.5	3.3	100.0

